

# ‘서재 주민과 함께하는 도예교실’

## 달성문화도시 다사·하빈권역

달성문화도시 다사·하빈 권역에서는 ‘서재 주민과 함께하는 도예교실’과 연계한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일(월) 서재 화진금봉타운 앞 담장에 도자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점등했다.



달성문화도시 다사·하빈 권역 다사로운 클래스 사업인 서재 주민과 함께하는 도예교실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도자기 작품으로 오래된 아파트 옹벽을 장식해, 삭막한 거리를 밝히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20여 명의 지역민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지역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열정

을 쏟았다.

이길식 서재화진금봉타운 입주자대표는 “벽화를 만들어 마을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주기 위해 벽화사업을 하게 됐다. 주민 20여 명이 3개월 동안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해 주셔서 너

무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와 달성문화도시센터 다사·하빈 권역에서 협력해 진행한 이번 사업은 달성문화도시 다사·하빈권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생활도자기 강의를 진행했으며,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설치 및 전기공사를 지원했다.

윤순덕 지역주민은 “예전에는 다닐 때 불빛이 없어 컴컴한 밤길 걷는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불빛도 들어오고 나비, 꽃도 있고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다. 밤길 걸을 때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서재 주민과 함께하는 도예교실은 이번에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공동체 의식도 강화되고 지역의 미관을 개선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좋은 평을 받았다.

박용하 다사·하빈권역 기획자는 “서재 주민들과 함께 오래된 옹벽에 핸드메이드로 도자기 작업을 해서 지나는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 누림 길’을 제작하게 됐다. ‘어두운 골목길에 빛을 바란다’는 슬로건을 넣어서 ‘행복 누림 길’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준업 객원기자

**우리 지역의 소식을 푸른방송 제보에 전해주세요**

푸른방송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푸른방송 제보>를 통해 전하고 싶은 사건/사고/뉴스 등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주세요.

**카카오톡 <푸른방송 제보>**

-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서 푸른방송 제보를 검색하세요!
- 채널 추가 후 1:1 채팅하기로 24시간 제보 가능!

이메일: gcs\_jebo@gcs.co.kr  
 전 화: 053-551-2002 / 053-572-6000

**GCS 푸른방송**  
GREEN CABLE TELEVISION STATION

### 국민연금 Q&A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66만 9,090쌍, 부부합산 최고연금액은 월 469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00만 원,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100쌍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